



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증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그리스 국채금리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증대로 유로존 이탈 추측이 확산되면서 사상 최고치로 상승함.

- 그리스의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9월 5일 50%대에 진입하였고, 9월 9일 55.76%, 9월 13일 장중 한 때 76%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
-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9월 9일 20.13%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20%를 돌파한 이후 9월 12일에는 24.21%까지 상승함.
- 9월 9일 그리스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3,001bp를 기록하여 디폴트 가능성이 91%가 되었으며, 9월 13일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98%까지 상승함.

■ 재정위기가 유럽 중심 국가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의 그리스 포기설, 그리스 경기 침체 가속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증대함.

- 프랑스 3대 대형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해 왔던 무디스는 9월 14일 크레디트 아그리콜, 소시에테 제너럴 등 프랑스 주요 대형은행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함.
 - 무디스는 이들 은행의 자본이 포르투갈, 아일랜드,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(위험노출액)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,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Aa1에서 Aa2로, 소시에테 제너럴은 Aa2에서 Aa3로 하향 조정함.
 - 그러나 BNP파리바에 대해서는 그리스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의 버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.
- 9월 둘째 주 무디스가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, 중국 정부가 이탈리아 국채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탈리아의 만기 국채 상황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.
 - 9월 13일 이탈리아 5년 만기 국채는 5.6%의 금리에 39억 유로가 매각되었으나, 매수 주문은 예상보다 부진한 수준이었고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은 500bp를 넘기면서 부도가능성이 커짐.

-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에 동참할 뜻을 밝혔던 중국이 이탈리아 국채 매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이탈리아 국채발행에 차질이 예상됨.
- 이탈리아는 9월 15일과 9월 말에 만기 국채 상환을 위해 국채발행이 필요한 상황임.
- 필리프 뢰슬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9월 12일 유로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의 디폴트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그리스 디폴트설을 촉발함.
-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의 2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.3% 감소하여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.

■ 그리스는 지난해 약속받은 1차 구제금융 1,100억 유로 중 이달 말까지 받기로 한 6차분 80억 유로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디폴트에 처하게 됨.

- 그리스 정부가 긴축재정 등 분기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구제금융 6차분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럽연합, 유럽중앙은행, IMF의 공동실사가 중단된 바 있음.

■ 다만, 9월 14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확인하고, 그리스 구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다소 감소함.

-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 디폴트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위한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못 박고 본격적인 그리스 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
- 그리스는 독일 및 프랑스와의 회의 이후 부동산 특별세 신설 등을 통해 20억 유로를 마련하고, 긴축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재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함.
- 이에 9월 14일 미국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1.27%, 프랑스 CAC40지수는 1.87%, 독일 DAX30지수는 3.36%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.

(Financial Times 9/14, Wall Street Journal 9/13, Bloomberg 9/13)